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4.10.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, 산하기관 국감자료 검열 시도” 제하
보도에 대한 입장 (‘14.10.6. 연합뉴스, 이투데이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에 ‘장관님 지시사항-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’ 공문을 보내, 국정감사 자료 검열 시도
- 산하기관이 전력사업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소관과에서 확인받도록 지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 국회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소관과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국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산하기관의 자료를 잘 챙기라는 취지였음
- 작년 국감에서 산하기관이 자료제출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국감시 답변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음
- 금년 국감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
- ☐ 공개된 사항 위주 작성 등 전력산업과 사무관 메일에 나온 내용들은 장관이 지시한바 없음
- ☐ 산업부는 국정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으며 성실히 임할 계획임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44-203-5240)